

고정 수입 없는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가능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을 한다. “나는 고정 월급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도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권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거나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판례와 실무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채무 한도 요건도 합

게 충족해야 한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낼 수 있느냐다. 프리랜서, 배달·대리운전 기사, 건설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보조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수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최근 몇 달 또는 1년 정도의 소득 흐름을 통해 평균 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입 요건은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인가 시에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더 꼼꼼해야 한다. 급여명세서가 있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나 일용직은 통장 입금 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현재 근무 확인서 등으로 실제 소득을 보여줘야 한다. 현금으로 받은 돈이 많고 기록이 부족하면 법원이 수입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고민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입은 가능한 한 계좌로 받고, 일한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득이 너무 적으면 회생보다 파산이나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더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공과금과 채무자

빚 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갚는 구조다. 따라서 생계비 등을 빼고 변제에 쓸 가용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권자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는데, 파산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노동능력, 가족 관계, 재산·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한 객관적 상태, 즉 지급불능이 인정돼야 한다.

단순히 젊고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소득과 생계비 규모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소득이 들쭉날쭉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변제금을 낼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프리랜서와 일용직에게 빚 문제는 더 불안하게 느껴진다. 일이 끊기면 바로 생활비와 대출 상황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정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과 지출, 채무 규모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일이다. 막연히 포기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재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K-방산의 신뢰, ‘개인적 일탈’로 선 긋기 전에



유 혜 온
〈산업부〉

방위사업청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를 둘러싼 뇌물 사건을 두고 '개인적 일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다른 방사청 직원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봐도 그렇게 선을 그을 단계인지는 의문이다.

검찰이 지목한 방사청 공무원은 5급 한 명이다. 하지만 사건의 범위는 작지 않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에 참여해 LIG D&A에 유리하게 평가한 대가로 3억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추천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공

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반대편에는 LIG D&A 임원들이 있다. 검찰은 부사장과 상무가 하위 용역계약 등을 거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지만 수년에 걸친 여러 사업을 사이에 두고 발주기관 공무원과 업체 임원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한 사람의 일탈로 한정하기에는 짹짹한 구석이 남는다.

LIG D&A 내부에서 관련 사업이 어떤 보고·결재 과정을 거쳤는지도 그중 하나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2021년 12월~2025년 5월),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기술(2022년 12월~2027년 6월),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2022년 12월~2025년 12월) 등 전자전 관련 과제와 장보고-II 잠수함 Link-22 체계개발 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ink-22 사업은 2023년 12월 계약돼 2028년까지 진행된다.

신익현 대표는 C4ISTAR사업본부장을 거

처 지난 2023년 C4ISTAR사업부문을 맡았다. 당시 C4ISTAR는 전자전을 사업 영역으로 두고 있었고, 앞서 언급한 전자전 관련 과제 3개 역시 2023년 모두 수행 중이었다.

물론 이사실만으로 해당 과제들이 당시 C4iSTAR사업부문 소관이었다거나 신대표가 관련 보고·결재에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에 오히려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담당 조직은 어디였는지, 기소된 임원들은 해당 사업과 결찰이 문제 삼은 용역계약을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확인되지 않은 책임을 누군가에게 미리 물을 수는 없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영역을 남겨둔 채 책임의 범위를 먼저 개인에게 한정해서도 안 된다.

불과 10여 년 전 방산업계는 대규모 방산
비리 수사라는 흑독한 시기를 겪었다. 그 흑
역사를 딛고 지금의 K-방산은 세계 시장에
서 전례 없는 성장기를 맞고 있다.

/dhale@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하는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세로로 고는 10도의 컬러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김상회의 四季

문명과 야만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기준은? 외양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 문물과 사회적 규범과 제도가 작동하는 기반 환경을 문명으로 정의하는 듯하다. 그러자니 서로 통하는 문자와 언어를 공유하는 도시나 국가 등의 사회적 기반과 환경이 문명의 최소 단위가 되는게 일반적이듯하다. 서구 중심적 구분에서 타 지역을 야만으로 규정하는 예는 허다하다. 서구 열강이 제국주의를 기조로 하면서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 지역들에 대해 식민지배를 일삼았고, 식민지의 문화를 야만이라 낮추었던 행태들을 보면 문명과 야만의 기준 자체는 단순히 힘의 논리에서 비롯됨을 느낀다. 남극 탐험에서, 우선 아문센은 북유럽 노르웨이 출신으로 남극 탐험 이전에 북서항로 탐험 등을 하면서 오랫동안 북극 근처의 혹한지에 거주하던 이누이트들을 찾아가 그들의 생활방식을 배웠다.

극지방 현지인들이 먹는 전통 보존식품, 순록의 털가죽으로 만든 코트와 장화, 개썰매로 이동하는 방식, 임시 쉼터용 이글루를 짓는 방법, 사냥법 등 혹한 적응 방식을 터득하여 탐험계획과 기술을 신중하게 했다. 스콧은 아문센의 출신국인 노르웨이보다 훨씬 강국이었던지라 문명국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탓에 아문센의 이동수단인 개썰매를 매우 야만적이라 보았다. 그래서 과학적 문명적 최신 기술인 설상차와 야쿠트 조랑말을 주요 이동수단으로 삼았다. 또한 영국 신사가 야만인의 추한 옷을 입을 수는 없다 하여 영국제 모직 방한복을 고집하여, 설원 생활방식보다는 대영제국의 소위 스노모빌, 통조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하지만 테스트도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하여 탐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아문센이 택한 아이누인들의 전통이 더 도움이 되었다. 문명과 야만의 차이는 어느 한 잣대가 기준이 될 수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	쇄	인
광교문리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5999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3호